

# 르완다 국가협력전략

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 
the Republic of Rwanda

2022. 1.

## 관계부처 합동

본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,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전략적 중요성 .....        | 1  |
| 1. 전략적 중요성 .....        | 1  |
| 2. 개발협력 수요 .....        | 2  |
| 3. ODA 추진 SWOT 분석 ..... | 4  |
| II. 수원국 분석 .....        | 6  |
| 1. 국가개발전략 .....         | 6  |
| 2. 수원체계 .....           | 11 |
| 3. 수원국 거시 분석 .....      | 14 |
| III.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.....   | 15 |
| 1. 기본 방향 .....          | 15 |
| 2. 분야별 수요 분석 .....      | 17 |
| 3. 분야별 지원 방안 .....      | 27 |
| 4. 이행점검방안 .....         | 32 |
| IV. 이행전략 .....          | 34 |
| V.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.....    | 36 |
| 1. 모니터링 방안 .....        | 36 |
| 2. 평가계획 .....           | 37 |

# I. 전략적 중요성

## 1 전략적 중요성

☞ 르완다는 안정된 정치, 높은 주인의식 및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협력의 효과성이 높고, 정부의 높은 혁신성 및 개방성으로 혁신적인 국가 간 협력 성과를 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높은 전략적 가치 보유

- (경제성장) 르완다는 안정된 정치, 투명한 거버넌스 및 해외 투자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중
  - '13-'20년 동안 연 평균 5.7%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,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방역조치를 시행중으로 경제·사회적 피해를 최소화
  - 경제 발전에 힘입어 기대수명 증가, 빈곤률 감소, 모성 사망률·아동 사망률 감소, 문해율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도 개선
- (개발협력 효과성) 르완다는 높은 주인의식, 정부 주도의 체계화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, 투명한 거버넌스 등을 바탕으로 타 아프리카 국가 대비 개발협력의 높은 효과성 예상
  - 우리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(PCSI) 및 종료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수원국의 평가가 전 국가 평균보다 높은바 전반적인 수원국의 만족도 및 평가가 긍정적
  - 르완다 정부는 높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정책 수립, 공여기관 협력체계 구축,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우수한 개발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가능
- (성과의 파급성) 르완다의 범아프리카주의 주도적 역할(아프리카대륙 자유 무역지대(AfCFTA) 체결 주도), 혁신적인 개발협력 모델 창출, 성공 사례에 대한 인근 국가로의 파급력 등 고려 시, 양국의 협력 성과 확산 가능

- 르완다의 SDG 파급력 지수(SDGs Spillover Score)는 100점 만점에 98.76점으로 높게 나타나, 르완다의 SDGs 목표달성이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 높은 함의
- 르완다 정부는 소규모 내륙국이라는 규모적,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 아프리카 국가와 차별화된 혁신성과 개방성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‘테스트 베드’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 중

## 2 개발협력 수요

### □ 르완다의 개발협력 수요

- (농업의 낮은 부가가치) 농업은 르완다 국내총생산의 약 1/3 및 전체 고용의 70%를 차지하는 등 핵심 산업이나, 만성적인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부가가치가 低
  - 현재 생산성이 낮은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
  -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지역경제 공동체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시장 진출을 위한 농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
- (노동의 수요 및 공급 불일치)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로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
  - 경제구조상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부재하고, 적절한 역량강화 기관이 부족하여, 만성적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
  - 따라서,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르완다의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, 한정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아프리카 지역 경제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양성 필요

- (ICT를 통한 구조적 전환) 르완다 정부는 ICT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는 중
  - 르완다 정부는 인터넷망 확충, 스마트폰 보급, 드론/로봇 산업 육성, AI 및 IoT 개발, ICT 역량강화 등을 위해 투자 중
  - 정부 행정 서비스의 신뢰 구축과 효율성 향상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, ICT를 활용한 공공 분야 개방성·투명성·책임성 개선이 집중 조명 중
  - 그러나, 디지털화의 기초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며, 자체 기술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술 인력의 만성적 부족으로 해외 투자 및 대외 기술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
- (인구 배당효과 창출 필요) 르완다 청년 인구(35세 이하)가 전체 인구의 약 78%를 차지하는 상황에서, 높은 청년 실업률\* 및 인구 증가\*\*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다대
  - \* 르완다 전체 실업률은 19.4%이나 16세-30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5.5%(르 통계청(NTSR), '21.3분기)
  - \*\* 르완다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약 2.6%로 최빈국(2.3%)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며(OECD 회원국 평균 0.4%), 연령 중위값은 20세로 청년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(WB)
  - 르완다 정부는 청년 인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중
  -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·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청년인구 및 인구 증가율을 인구배당효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

### □ 한국 對 르완다 관계

- (외교관계) 1963년 3월 수교(북한과는 1972년 4월 수교)
- (주요 협정체결) 경제·과학 기술협정(2006), 투자증진·보호협정(2013), 개발협력협정(2013)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14)
- (교역·투자) 교역·투자는 매년 비슷한 규모이며, 절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타 아프리카 국가 대비 상위권 수준

#### < 對 르완다 교역·투자현황 >

| 구 분      | 2017   | 2018   | 2019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수출(천 달러) | 71,801 | 10,650 | 12,504 |
| 수입(천 달러) | 1,911  | 2,391  | 2,601  |
| 투자(천 달러) | 791    | 1,450  | 4,367  |

자료 : 2021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

□ 對 르완다 ODA SWOT 분석(지원시 고려사항)

|      |      | 강점 S  | 약점 W   |
|------|------|---|--|
| 외부환경 | 내부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리정부의 ODA 비교우위 분야 (ICT, 전자정부 등) 및 전략(디지털, 그린 ODA)과 수원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일치</li> <li>농업/교육/ICT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발협력 추진</li> <li>중점협력 분야별 축적된 사업 추진 경험 및 역량</li> <li>우리정부 ODA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높은 만족도 및 평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예산 요구 및 심의 절차 준수에 따른 경직된 사업 기획 및 발굴 절차</li> <li>ODA 사업수행기관 간 분절화</li> <li>타 대규모 공여기관 대비 사업예산 및 인력 규모 한계</li> <li>적정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국내 사업수행기관 및 전문가 참여 애로</li> <li>통합적, 혁신적 사업 형성 및 추진 경험 부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기회 O | <b>SO 전략 (중점추진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/교육/ICT 등 기존 중점 전략 분야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통합적, 혁신적 성과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</li> <li>개발자원 수용성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인적역량, 특히 청년 취창업 및 ICT 분야 지원 강화</li> <li>혁신적 사업수행 및 과학적 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동아프리카 지역 혁신 센터 (Center of Excellence) 국가화 및 성공 모델 역내 공유 강화</li> </ul> | <b>WO 전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예산, 인력 대비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 개선, 시범 사업,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발굴</li> <li>업무처리 정보화, 대국민서비스 정보화 등 전자정부 분야 프로그램 발굴</li> <li>수원국 정부조달 등 수원국 시스템 활용 확대</li> <li>혁신적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개발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</li> </ul> |
| 위험 T | 위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규모 내륙국 및 낮은 산업 경쟁력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</li> <li>한정된 내수시장의 소비력</li> <li>정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역량 부족 및 낮은 효율성</li> <li>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인구 증가율</li> <li>기후변화 피해 증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원국 정부 및 타 개발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강화</li> <li>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 ODA 프로그램 구성</li> <li>현장 기반 사업 발굴 및 형성을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</li> </ul>  |
|      |      | ST 전략   | WT 전략  |

## II. 수원국 분석

### 1 국가개발전략

#### □ 장기 국가개발계획

- 르완다 정부는 '00년에 수립한 Vision 2020의 성과를 기반으로, 경제적 번영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50('20-'50)을 수립
  - 르완다 정부는 1994년 내전 종식 이후 무너진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'00년 첫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20('00-'20) 수립
  - '15년 13회 연례국민대화위원회(National Umushyikirano Council)에서 Vision '20 이후의 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'20년부터 '50년까지의 30년 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50 수립
- Vision 2050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성장, 번영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, "The Rwanda We Want"의 캐치 프레이즈를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5개 핵심 주제별 성장목표를 제시

#### < Vision 2050 핵심 주제 >

| 주제                | 성장목표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인적자원 개발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준 높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 접근성 보장</li> <li>·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노동시장 확대</li> </ul>   |
| 경쟁력 강화 촉진 및 지역 통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혁신적 지식기반산업 양성</li> <li>·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개발</li> <li>·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</li> <li>· 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 성장</li> </ul> |
| 농업을 통한 부 창출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장중심 농업모델로 개혁</li> <li>· 고부가가치 산업과 결합</li> <li>·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강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시화와 집적화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 제공</li> </ul>  |
|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</li> <li>·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제도 확립</li> </ul>   |

자료: Vision 2050 보고서 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, 2019)



- 동 비전은 SDGs 2030, 아프리카 연합 아젠다 2063, 동아프리카 공동체Vision 2050, 파리 기후변화협약('15) 등 기존 개발 의제 및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

**< 르완다 장기국가개발계획(2020-2050) 지표별 중·장기 목표 >**

| 목표  | 번호 | 지표  | 기초선(2020)   | 2035 목표 | 2050 목표 |
|---|-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|
| <b>인적자원 개발</b>  |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|
| 양질의 복지  | 1  | 기대수명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7.8  | 71.7    | 73      |
|   | 2  | 인구성장률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5 (2019)  | 1.7     | 1.4     |
|   | 3  | 출산율   | 4.1   | 3       | 2.3     |
| 포괄적 경제성장  | 4  | 1인당 국내 총생산(USD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7(2019)   | 4,036   | 12,476  |
|   | 5  | 지니계수  | 0.43 (2017)   | 0.35    | 0.3     |
| 일자리 창출  | 6  | 실업률   | 15.2% (2019)  | 7%      | 0.05    |
|   | 7  | 노동참여인구의 남녀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8:1   | 1.5:1   | 1:1     |
| 비용 합리적이고<br>전문화된 보건<br>서비스 접근성  | 8  | 모성 사망률(태어난 아이 10만 명당)                         | 203   | <50     | <20     |
|   | 9  | 유아 사망률(태어난 아이 1천 명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  | <25     | <18     |
|   | 10 | 5세 이하 영아사망률(신생아 천 명당)                         | 45  | 33      | 24      |
|   | 11 | 5세 이하 성장부진 아동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  | 5.5     | 3       |
| 양질의 교육<br>접근성<br>* 르완다 교육제도<br>3~6세:유아교육<br>7~12세: 초등교육<br>13~15세:<br>전기중등교육<br>(초등교육+전기중<br>등교육=기본교육)<br>16~18세:<br>후기중등교육(고<br>등교육) | 12 | 유치원 등록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.6% (2019)  | 99%     | 99%     |
|   | 13 | 기본교육을 마치고 최소한의<br>산술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<br>아동 비율 | 산술능력<br>총 78.8%<br>남: 81.8%<br>여: 75.9%<br>문해율<br>총 71.3%<br>남: 77.6%<br>여: 65.3%<br>(2017) | 99%     | 99%     |
|   | 14 | 초등교육 후 전기중등교육과정에<br>등록한 아동 비율                 | 72.2% (2019)  | 94.30%  | 97%     |
|   | 15 | 기본교육과정 학생의 직업훈련학교<br>등록률                      | 33.6% (2019)  | 60%     | 60%     |
|   | 16 | 평균교육기간  | 4.4   | 6.9     | 10.9    |
|   | 17 | STEM(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) 관련<br>분야 졸업자 비율          | 36.9%<br>남: 42.6%<br>여: 29.9%   | 44.26%  | 50%     |
|   | 18 | 인구대비 대학 청년인구 고용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.8%<br>남: 59.0%<br>여: 54.5%   | 77.48%  | 80.18%  |
|   | 19 |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 총생산 대비<br>국내 총지출                  | 0.66% (2016)  | 1.50%   | 3.00%   |
|   | 20 | 사회경제 개발 분야 연구 간행물<br>발간 참여 연구자 비율             | 23.0%<br>남: 22.0%<br>여: 26.7%   | 38.30%  | 52.00%  |
|   | 21 | 건강보험 가입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%   | >95%    | 100%    |
| 포괄적<br>사회안전망  | 22 | 빈곤 및 취약계층 인구 중<br>사회보호시스템 혜택을 받는 비율           | 6.5% (2017/18)  | 20%     | 50%     |
|   | 23 |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70%   | 30%     | 50%     |
| <b>경쟁력 강화 촉진 및 지역 통합</b>  |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|

|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 | 지표  | 기초선(2020)  | 2035 목표  | 2050 목표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|--|---|
| 미래산업 기반 다각화된 경제          | 24 | 산업 분야의 국내총생산 부가가치 기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% (2019)   | 24%  | 33%   |
| 경제 전환과 성장을 이끄는 혁신 서비스 분야 | 25 | 서비스 분야의 국내총생산 부가가치 기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| 49% (2019)   | 46%  | 42%   |
| 투자 유치                    | 26 |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% (2019)   | 32.60%   | 35.10%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 |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3 MtCO <sub>2</sub> e  | 16.13 MtCO <sub>2</sub> e<br>BAU 조정시<br>10 MtCO <sub>2</sub> e   | 28.2 MtCO <sub>2</sub> e<br>BAU 조정시<br>17.5 MtCO <sub>2</sub> e   |
| 농업을 통한 부 창출              |    |   |  |  |   |
| 시장중심 농업                  | 28 | 농업 분야의 국내총생산 부가가치 기여도 <sup>1)</sup>             | 24% (2019)   | 21%  | 16%   |
| 도시화와 집적화                 |    |   |  |  |   |
|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화            | 29 |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4%<br>(2016/17)   | 52.69%   | 70%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| 도시 빈민가나 주거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인구 비율               | 62.6%<br>(2016/17)   | 44%  | 20%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 | 국가 토지 활용과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용된 토지(km <sup>2</sup> ) | 농업:<br>10,949km <sup>2</sup><br>기성시가지와<br>기반시설:<br>2,888km <sup>2</sup><br>숲: 7,242km <sup>2</sup><br>수역과<br>완충지대:<br>1,637km <sup>2</sup><br>습지와<br>완충지대:<br>2,068km <sup>2</sup> | 농업:<br>11,691km <sup>2</sup><br>기성시가지와<br>기반시설:<br>3,434km <sup>2</sup><br>숲: 7,483km <sup>2</sup><br>수역과<br>보호습지:<br>2,200km <sup>2</sup> | 농업:<br>12,433km <sup>2</sup><br>기성시가지<br>와 기반시설:<br>3,980km <sup>2</sup><br>숲: 7,725km <sup>2</sup><br>수역과<br>보호습지:<br>2,200km <sup>2</sup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 | 연간 재생가능한 수자원 유효성(m <sup>3</sup> /capita/a)      | 670m <sup>3</sup><br>국가 수자원<br>사용<br>마스터플랜<br>(2015)   | 1,000m <sup>3</sup>  | 1,700m <sup>3</sup>   |
| 비용 합리적인 양질의 주거 공간        | 33 | 국가 정착계획에 따라 외곽 지역에 정착한 가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| 67.2%<br>(2016/17)   | 100%   | 100%  |
| 이동 접근성과 효과성              | 34 | 대중교통수단 이용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%  | 24%  | 40.00%  |
|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       | 35 |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.78%   | 60%  | 60%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 | 전기 사용 가능한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%  | 100%   | 100%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 | 1인당 에너지 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Kwh (2019)  | 1,026 Kwh  | 3,080 Kwh   |
| 양질의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| 38 |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이용하는 가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| 86.20%<br>(2016/17)  | 100%   | 100%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 | 개선된 수원 사용하는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7.4%<br>(2016/17)   | 100%   | 100%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| 주거지와 뜰에서 개선된 수자원 사용하는 가구 비율(안전한 식수 포함)          | 9.4%(전국)<br>39.2%(도시)<br>2.3%(지방)<br>(2016/17)   | 55%  | 99%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 |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.77% (2018)  | 60%  | 88%   |
|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|    |   |  |  |   |

| 목표           | 번호 | 지표                 | 기초선(2020)            | 2035 목표 | 2050 목표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강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| 42 | 온라인 공공 서비스 비율      | 40%                  | 100%    | 100%    |
| 원조 의존도 감소    | 43 | GDP 점유율에 따른 국내 수입  | 19.4%<br>(2018/2019) | 21.50%  | 21.50%  |
|              | 44 | GDP 대비 국민총저축 비율    | 13.2% (2019)         | 22.40%  | 27.70%  |
|              | 45 | 금융 분야의 GDP 기여도     | 2%                   | 5.2%    | 11.8%   |
|              | 46 |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자금 총 자산 | 0%                   | 320%    | 641%    |

자료: Vision 2050 보고서 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, 2019)

## □ 중기 국가개발전략

- 르완다 정부는 '17년 폴 카가메 대통령의 연임이 결정된 직후 Vision 2020을 매듭짓고 Vision 2050의 착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변혁전략(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I, NST I) 발표
  - NST I 은 '17년부터 '24년까지의 장기 국가개발계획 하위 이행 지침으로, Vision 2020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Vision 2050의 토대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
  - 아울러, 경제개발 및 빈곤퇴치 전략('18-'24)과 하위 계획인 분야별 전략 계획(Sector Strategic Plans, SSP), 지역별 개발 전략(District Development Strategies, DDS) 포괄

### < 르완다 개발계획 Framework >



1) 농업기반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경제구조전환 추구

- 동 전략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산업화와 현대화, 서비스업 확대, 민간투자유치를 골자로 ▲경제 ▲사회 ▲거버넌스 전환의 세 가지 주제별 세부 이행 전략을 제시

**< 르완다 국가변혁전략 주요 주제별 목표 >**

| 핵심 주제   | 주요 정책과제  |
|---------|--|
| 경제 전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양질의 일자리 150만 개 창출</li> <li>· 도시화 가속화(2024년까지 17.3% → 35%)</li> <li>·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 확립</li> <li>· 산업화 촉진 및 연간 수출 17% 달성</li> <li>· 투자 증대를 위한 저축 고무</li> <li>· 농축산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</li> <li>· 천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</li> </ul> |
| 사회 전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빈곤 퇴치</li> <li>· 영양실조 근절</li> <li>· 양질의 보건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</li> <li>·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</li> <li>· 현대적인 생활환경 조성</li> </ul>   |
| 거버넌스 전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통합의 문화 및 가치 강조</li> <li>· 국민과 재산의 안전과 안보 확립</li> <li>· 국제협력 증대</li> <li>· 정의, 법, 질서의 강화</li> <li>· 공공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</li> <li>· 시민 참여 증대</li> </ul>  |

자료: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1 (2017)

## □ 개발협력정책

- 르완다 정부는 장기 국가개발계획(Vision 2050) 및 중기 국가변혁전략(NST 1)과 연계된 정부의 ‘개발협력정책(Rwanda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, '19)’을 수립
- 동 정책은 '06년에 수립된 ‘르완다 원조정책(Aid Policy of Rwanda)’을 대체하는 르완다 정부의 최상위 개발협력정책이며,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

**<르완다 원조 정책 및 개발협력정책 비교 >**

| 구분    | 르완다 원조 정책(2006)                     | 르완다 개발협력정책(2019)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배경    |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개발 원조로 전환                | 원조 의존도 감소 및 개발 효과성 담보   |
| 목표    | 향상된 원조 효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르완다 개발비전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구조적 전환에 기여  |
| 원칙    | 컨설팅(Consultation) 및 다이얼로그(dialogue) | 주인의식, 성과 중심,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, 투명성 및 상호 책무성  |
| 이행 방법 | ODA, 기술원조, NGO, 일반 재정지원에 정책 집중      | ODA, 국가 역량 개발, 국내 자원 동원, 민간 섹터 참여 재원(혼합 재원, PPP 등 혁신 모델), 국내 송금 활용, 기후변화,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 |
| 주안점   | 수원국 정책과의 연계 및 공여기관 간 조화             | 혁신적인 개발 재원 및 민간재원 유도 활성화  |

자료 : Aid Policy of Rwanda (2006), Rwanda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(2019)

## □ 수원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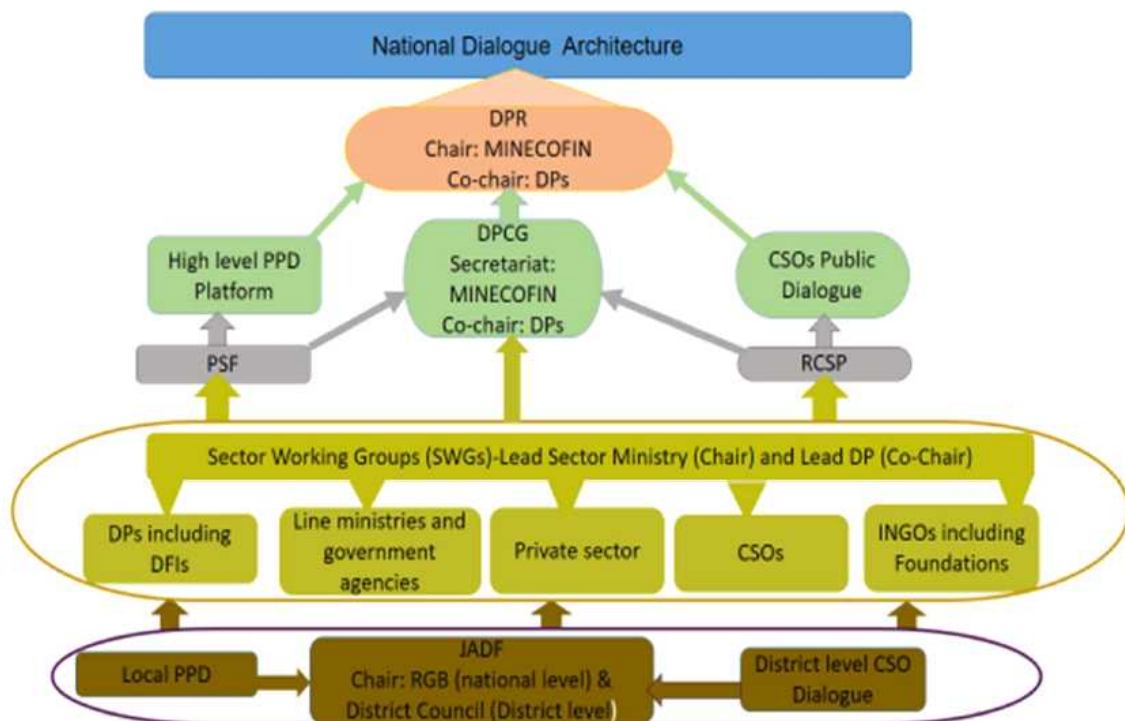
- 르완다 개발협력정책을 근거로 르완다 정부의 수원체계 및 공여국과의 협력체계를 체계화
  - 수원총괄기관은 재정경제기획부이며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, MINECOFIN), 재정경제기획부의 조정 하에 농축산부, 교육부, 청년문화부 등 각 수원부처가 긴밀히 협력 중
    - －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는 개발협력 원칙\*을 기반으로 공여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적극 소통 및 협력 중
- \* 주인의식, 성과 중심,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,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

## □ 공여국 협력체계

- 르완다 정부는 재정경제기획부 주도의 공여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유·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및 양자지원 기관과의 조정 및 소통 기재를 운영·관리 중
- 르완다 정부와 공여국 간 협의제도는 크게 ①개발 파트너 리트리트 (Development Partners Retreat, DPR), ②분기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(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, DPCG), ③분야별 정기 회의(Sector Working Group, SWG)로 구성
  - － (개발 파트너 리트리트) 르완다 국가 전략 우선순위 및 개발재원의 동원을 논의하는 가장 상위 주체 협의제도로, 연 1회 개최되며, 동 회의를 통해서 르완다 정부 및 공여국 간 개발 아젠다를 설정
  - － (분기 개발 파트너 조정회의) 중간 단계의 협의제도로써 분기마다 개최되며, 르완다 정부 및 공여국들이 개발 파트너 리트리트에서 논의된 사안의 현황을 공동 점검

- (분야별 정기 회의) 르완다 정부부처 및 공여국이 ICT, 교육, 농업, 보건 등 르완다의 15개 중점 개발 분야별 이슈를 논의하고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 공유
- 지방정부 단위에서 상기 협의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을 협의 및 이행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 및 NGO 간 협의제도인 **공동 행동 개발포럼(Joint Action Development Forum, JADF)**을 운영

### <르완다 정부 및 공여기관 협의체계>



자료: Rwanda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(2019)

- (개발협력 방식) 르완다 개발협력 정책은 프로그램 기반 접근방식, 분야예산지원, 성과중심 자금지원, 합동기금, 직접지원, 혼합금융, 민관협력 등 **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방식을 조화롭게 추구**
- (모니터링, 평가 및 보고) 르완다 정부는 공여국과 공동으로 합의한 성과관리 원칙, 성과지표 등을 통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개발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, 평가 및 보고

- (공여국 성과평가 프레임워크)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정부 및 공여국 간 상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여국 성과평가 프레임워크\*(Donor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, DPAF) 운영

\* 프레임워크는 양자 및 다자협력 파트너의 ODA 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성과지표로 측정 및 평가

- (개발원조 데이터베이스)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는 공여기관 으로부터 유입된 개발원조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원조 데이터 베이스\*(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)를 구축 및 운영

\* 각 공여국이 재정경제기획부에 제출한 개발원조 자금 정보에 기반

- (외부 개발 금융재원 보고서)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는 매년 외부 개발 금융재원 보고서\*를 발간하여 포괄적인 개발 금융 재원의 흐름을 분석 및 보고

\* 개발원조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작성되며, 개발협력 재원 규모뿐만 아니라 공여기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평가 결과도 함께 분석하여 보고

## □ 신용위험

- (대외채무) 르완다 총외채 잔액 및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'1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, 르완다 정부는 양허성차관 우선 도입 및 장기채 발행 등을 통해 외채관리 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 중
- (신용등급)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는 르완다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(OECD 6등급, Moody's B2, S&P B+)

## □ 재정건전성 관리능력

- (재정수지)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재정적자폭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17년  $\Delta 2.5\%$ 에서 21년  $\Delta 7.1\%$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&lt; 르완다 주요 경제지표(대외 및 외채) &gt;

| 경제지표      | 단위    | 2017  | 2018  | 2019  | 2020*  | 2021*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재정수지/GDP  | %     | -2.5  | -2.6  | -5.2  | -7.7   | -7.1  |
| 경상수지      | 백만 달러 | -690  | -746  | -781  | -791   | -868  |
| 경상수지/GDP  | %     | -7.5  | -7.7  | -7.7  | -7.6   | -8.2  |
| 상품수지      | 백만 달러 | -829  | -915  | -820  | -1,053 | -955  |
| 수출        | 백만 달러 | 1,050 | 1,126 | 1,269 | 785    | 949   |
| 수입        | 백만 달러 | 1,879 | 2,041 | 2,089 | 1,837  | 1,905 |
| 외환보유액     | 백만 달러 | 1,072 | 1,252 | 1,363 | 980    | 1,067 |
| 총외채잔액     | 백만 달러 | 4,825 | 5,489 | 6,257 | 7,178  | 8,075 |
| 총외채잔액/GDP | %     | 52.1  | 57.0  | 61.8  | 68.8   | 76.0  |
| 단기외채      | 백만 달러 | 68    | 105   | 147   | 141    | -     |
| 외채상환액/총수출 | %     | 5.7   | 7.2   | 7.2   | 19.1   | 18.4  |

\* 주: 2020년 수치는 추정치,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(2020), 2021 세계국가편람

## □ 정치적 위험

- (거버넌스) 르완다애국전선(Rwandan Patriotic Front, RPF) 소속 Paul Kagame 대통령의 '00년 취임 이후 장기집권이 지속\*되고 있어 거버넌스는 비교적 안정적

\* '17.10월 대선 Kagame 대통령 당선(지지율 98.8%), '18.9월 대선 RPF가 하원 총 53석 중 40석 차지



### Ⅲ. 우리나라의 지원계획

#### 1 기본 방향



□ (지원목표) 르완다의 ‘장기 국가개발계획(Vision 2050)’이 목표로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성장, 번영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 이행을 지원

□ (중점협력분야 및 선정사유) 르완다의 국가개발계획,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경험, 기회·장애요소, 예상 재원 규모, 타 공여국과의 공동 협력, 분야 간 연계성을 고려

→ 중점협력 3개 분야 선정

① (농업) 농업의 부가가치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

→ 수출 작물의 전략적 육성, 농업 가치사슬 개선, ICT를 활용한 산업의 효율성 강화 및 민간부분 지원을 통한 시장성 개선

② (교육) 기초 학습역량 및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한 인력양성 필요

→ 직업기술교육 접근성 개선, 직업기술교육 품질 개선 및 산학협력 확대 필요

③ (ICT)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ICT 활용역량 강화 필요

→ 정부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확대, ICT분야 인적역량 강화 필요

## 2 분야별 수요 분석

### (1) 농업 분야

#### □ 개발수요

- (농업의 중요성) 농업은 GDP의 1/3 차지, 고용의 70%를 담당
  - 르완다 장기 국가개발계획(Vision 2050)에 따르면, ‘농업을 통한 부 축적’은 최우선 국가 발전 과제로 명시
  - 르완다 국가전환전략(NST1)은 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로 ▲양질의 일자리 150만 개 창출, ▲산업화 촉진 및 연간 수출 17% 달성, ▲농축산 현대화생산성 증대를 선정, 사회 전환을 위해 ▲빈곤퇴치 및 ▲영양실조 근절을 강조
  - 농업은 ▲식량안보, ▲영양섭취, ▲수출, ▲제조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중요한 개발 분야
  - 르완다 정부는 농업 발전을 통해 상기 국가적 개발 과제들을 해결코자 하며, ‘50년까지 생계형 농업을 기술집약적인 상업농 및 농산물 가공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
- (전략적인 수출작물 육성 필요) 르완다 정부는 소규모 내륙국의 지정학적 한계 및 한정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개발전략으로 농산물 수출을 적극 육성 중
  - 르완다 수출육성 정책, 국가 농업수출 개발청 전략 계획(NAEB Strategic Plan '19-'24)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공동체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추진 중
  - 주요 농산물 수출품은 커피, 차, 토마토 및 통조림, 꿀, 완두콩 등이며, 르완다 정부는 과거 전통 수출작물 중심(커피, 차)에서 신흥 수출작물(원예, 잡곡, 허브 등)로 수출 작물을 다변화하는데 주력 중

- 르완다의 농산물 수출액은 '14년 2억12백만 달러(USD)에서 '17년 3억56백만달러로 급격히 증가, '24년에는 1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설정
- (농업 가치사슬 강화 필요) 르완다 정부는 농업 전환을 위한 전략 (Strategic Plan for Agriculture Transformation 4, '18-'24)에서 자급자족 중심의 농업에서 시장 지향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
  - 르완다의 농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%를 담당하고 있으나 GDP의 1/3 정도만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창출
  - 이에,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강화를 통해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개발과제
- (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ICT 활용 필요) 농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구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ICT의 활용을 적극 추진중
  - 르완다 정부는 농업을 위한 ICT 전략('16-'20)에 의거하여,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중
  - 특히, ICT 분야는 교육, 농업, 산업 등 모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범분야 개발이슈로서 르완다 정부의 최우선순위 개발목표에 해당
- (민간부문과 연계한 시장성 향상 필요) 농업 시장성 향상을 위해 과거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정부는 우호적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민-관 연계형 개발 전략을 추진중
  - 르완다 정부는 작물 집중 프로그램 및 농지사용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주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였으며,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가치사슬 전 개선에도 관심
  - 이에 따라, 농업 가치사슬 내 수직적 조정(Vertical Coordination), 규모의 경제 실현, 전문화 등을 통한 농업의 시장성 향상을 위해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

## □ 한국의 원조역량

- 한국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, 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,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,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증대를 달성한 경험 보유
  - － 농지 및 관개개발, 홍수 방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, 적절한 영농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 증진에 기여
  - －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, 협동조합 구성 등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룬 경험 보유
- 한국은 수원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,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원조사업을 수행하며, 농업 분야에서 원조역량 및 경쟁력 강화중
  - － KOICA, 농림축산식품부, 경상북도, 등 다양한 국내 기관이 농업 ODA 사업을 수행 중이며, 다자협력기관, 시민사회(CSOs) 및 사회적 기업과도 협력 강화중
- 특히, 한국은 스마트팜, 빅데이터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경험이 있어, 르완다 정부의 농업 ICT 정책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[2] 교육 분야

### □ 개발수요

- (교육의 중요성) 르완다는 건강, 적절한 교육 및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
  - － 르완다 장기 국가개발계획은 ‘인적자원 개발’을 최우선 국가 발전 과제로 명시하고, 이를 위해 ▲고품질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향상 및 ▲높은 생산성을 위한 노동력의 혁신을 추구
    - \* 특히, ‘높은 생산성을 위한 노동력의 혁신’ 영역에서는 직업기술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문 개발을 중점 사항으로 명시
  - － 르완다 국가전환전략(NST1, '17-’24)의 주요 정책과제를 달성(일자리 창출 및 지식기반 경제 확립 등)하기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
  - － '18년 기준, 초등학교 입학률 94.8% 및 15-24세 인구 문해율 86.5%로 기초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은 양호한 수준
  - － 그러나, 중등교육 이수율이 36.8%로 낮고 산업 수요에 부합한 인재 양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고품질 인력 양성을 위한 TVET 및 고등교육에 양적·질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필요
  - － 이에, 한국의 경험 및 그간 對르완다 ODA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, TVET 분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분야 협력 추진 필요
- (TVET 분야 정책 현안) 르완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'17년 르완다폴리테크닉(Rwanda Polytechnic/RP)을 설립하고, 국가적 TVET 통합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
  - － '20년에는 TVET 분야 합리화 정책에 따라 추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, 인력개발원 폐지, 르완다 TVET 위원회 및 국가시험 및 장학원 설립

※ RTB 및 NESA 설립 전에는 RP가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 (Integrated Polytechnic Regional Center/IPRC) TVET 학교를 총괄하였으나, 이들 기관 설립에 따라 중고등학교 수준 TVET 업무를 해당 기관에 이관

－ 르완다 정부는 '24년까지 기초교육 졸업자의 60%가 TVET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, 신규 TVET 학교 설립, 기존 학교 교육과정 확대, 진학 유도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 중

－ 아울러, TVET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역량기반 교육훈련 및 역량기반 교육훈련평가(Competency-based Assessment, CBA) 제도를 적용 ·이행하고자 노력 중

※ KOICA는 르완다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('14-'19/500만불)을 통해 CBT/CBA 시범 추진을 위한 제도개발, 기술지원, 역량강화 지원

－ TVET 인력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(인터넷 플랫폼,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드론 등 무인장비)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한 교육훈련과정 개선 추진 중

※ 프랑스 정부는 르완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역량강화 수요를 반영하여 '20년부터 총 EUR 750만 규모의 ODA를 통해 '22년까지 IPRC-Tumba에 기계전자공학(Mechatronics) 학과를 신규 개설 중

－ 종합하면, TVET 분야의 개발수요는 ①교육접근성 확대 개선, ②교육훈련 품질 제고에 우선 순위 부여

○ (TVET 교육 접근성 개선) 르완다 정부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 중 TVET 관련 교육 확대, 신규 학교 설립, TVET 인지 제고, 민간투자 활성화, ICT 활용 확대 등의 세부 과제 계획 수립 및 추진중

\* 24년까지 9년간의 기초교육을 마친 졸업생의 60%가 TVET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나, '20년 기준 31.6%에 불과

－ 또한, TVET 고등교육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IPRC의 정원 확대 및 이에 필요한 교육 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수요 부상

\* '20년 기준 IPRC 입학 지원자는 11,243명이나 입학 가능 인원은 3,500명으로 경쟁률은 약 4대 1 수준이며, 매년 지원자 증가('18년 7,748명, '19년 8,982명, '20년 11,243명)

- 다만, 정부 예산이 한정적인 바, TVET 학교 수익사업 추진 의무화 및 민간사업자 대상 TVET 기여금 부과 등 TVET 재원조달 모형(TVET Funding Model)을 기획 중
- (TVET 품질 향상) TVET 졸업생의 역량 강화 및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, TVET 품질 향상 관련 정책적 노력 지속 중
  - 르완다 정부는 '12.6월 르완다 TVET 자격 표준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 중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부족, 미흡한 교육평가 제도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, 교육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·정책자문 등의 수요가 높음
- \* 르완다 정부는 '13년부터 역량기반의 교육과정(Competency-based Curricula) 제도 도입 및 이행 노력 중
- 아울러,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훈련을 위해, '15년 현장중심 학습정책도입, '20년 르완다 개발위원회의 국가 기능개발 및 고용촉진 전략 수립 등 노력중
- 또한,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멘토링, 인턴십, 커리어 개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

## □ 한국의 원조역량

- 한국은 국가차원의 거시적 경제 개발 계획에 교육 목표를 연동시키고, 양질의 교사 양성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기간에 교육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
-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차례 수립하며,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TVET 체제를 지속적으로 혁신
  - 특히,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교사양성에 주력,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, 교원 복지 및 처우 등은 높은 경쟁력 보유



- 또한, 국가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등 우수한 TVET 체계를 구축한 바 있어, 르완다와의 개발경험 공유와 역량강화 등 가능
- 한국은 반도체, 배터리, 스마트폰, 디지털 콘텐츠,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ICT 강국으로, 르완다 정부가 중점을 둔 ICT 분야 인재양성에 비교우위를 보유중
- 한국의 교육 및 ICT 분야의 비교우위를 조합하여, 르완다의 ICT 분야 직업훈련기술 교육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시, 우리 ODA 사업의 효과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### **(3) ICT 분야**

#### **□ 개발수요**

- (ICT의 중요성) 르완다는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ICT Hub로 거듭나기 위해, 정부 행정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중
- 르완다 장기 국가개발계획은 ▲인적자원 개발 및 ▲경쟁력 강화 촉진 및 지역 통합의 주제 하 ICT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강조
- 르완다 국가전환전략(NST1, '17-'24)상 ICT를 우선순위 분야로 설정하였으며, 하위 전략으로 스마트 르완다 마스터 플랜 및 '18-'24 중기 ICT 분야 전략계획(ICT Sector Strategic Plan/ISSP) 수립
- 르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의 핵심 분야로 ICT를 선정하고 ▲ICT 인프라 확충, ▲ICT 산업 육성, ▲ICT분야 교육 역량강화, ▲다분야(농업, 보건 금융 등) ICT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투자 중
- '19년 르완다 ICT 부문의 성장은 약 9%, ICT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도 '18년 8,200만불 규모를 달성('17년 3,240만불 대비 약 150% 성장)하는 등 지속 증가

- 또한, 르완다 거버넌스위원회가 '20년 발간한 르완다 거버넌스 스코어카드(Rwanda Governance Scorecard/RGS)는 ICT를 통한 서비스 전달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ICT 서비스 도입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특히, 국가 디지털 인재 정책(National Digital Talent Policy, '16)을 수립
- 이를 고려할 때, ① 정부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확대, ② ICT 분야 인적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 필요
- (정부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확대) 르완다 정부는 ICT를 활용하여 공공 분야의 개방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개선하는 한편,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
  -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(IREMBO, EBM 등)하고, 공공 분야 혁신 및 효율성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중
  - ※ KOICA는 르완다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조세포털 구축 사업('18-'22/610만불) 으로 전자 세정 도입을 통한 조세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 제고 지원 중
  -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, 출입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출입국 시스템, 국민 신상정보(Legacy Data) 전산화, 정부 전자시스템 통합화 등 다양한 수요 발굴 가능
- (ICT 분야 인적역량 강화) 르완다 정부는 ICT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인재 양성과 일반 국민의 ICT 문해율 증진 등을 위해 노력 중
  - 국가 디지털 인재 정책('16)에 따르면, ICT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르완다 사회 모든 수준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이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필수적 요소로 분석
  - ※ ICT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Nyabihu 직업기술훈련학교 및 르완다 코딩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동 아카데미를 향후 총 5개교로 확장시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성할 계획
  - 그러나, '20년 기준 디지털 문해율은 20.4%에 그치고 있어 디지털 문해율 증진이 향후 ICT 성장 촉진을 위한 중요 과제로 대두

- 전자정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문해율 향상 및 ICT 활용역량 강화가 병행될 필요
- ※ 르완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ICT 활용역량 강화 및 디지털 문해율 향상을 위해 공여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을 '17년부터 추진 중('19년 기준 총 23,377명이 수혜를 받음)

## □ 한국의 원조역량

- 한국의 ICT 분야는 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해 왔으며,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(반도체, 스마트폰 등)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
  - '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90.49점을 기록해 세계 1위('14~'19년 6년 연속 1위)
-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'25년까지 총 58.2조원을 투자하여 경제·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
  - ▲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생태계 강화, ▲비대면 산업 육성 및 ▲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중
- 디지털 뉴딜 ODA를 통해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SDGs 달성 촉진을 지원중
  - 우리 정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('21)를 통해 '과학기술·ICT ODA 활성화 전략'을 의결하고, 르완다를 동 전략의 시범 이행국가로 선정
  - ※ ▲효과적 과학기술ICT ODA 추진체계 구축, ▲지속가능발전 지원을 통한 공동성장 견인 및 ▲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ICT ODA 의제 선도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
  - 특히, ▲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, ▲주요 분야 ICT 융합 확대, ▲경제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, ▲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지원 등을 통해 르완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 중
  - KOICA는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('21-'25)을 수립하여 ▲디지털 주류화 확대, ▲디지털 핵심사업 추진 및 ▲생태계 조성 및 추진기반 구축의 3대 방향을 설정 및 이행 중이며, 르완다를 중점추진국가로 선정

- 수원국의 ▲디지털 정부, ▲디지털 접근성, ▲디지털 경제 및 ▲디지털 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중
-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주도
  - '2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전체 193개국 중 온라인 참여지수 1위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
- 한국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접근성을 토대로 ICT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
  - '19년 기준,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82%(1위), 인터넷 속도 1위, 초고속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 1위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1위 기록

### 3 분야별 지원 방안

#### (1) 농업 분야

##### □ 기본 방향

- (농업의 고부가가치화)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,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국가 산업구조가 2차(가공) 및 3차(서비스)로 다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

##### ※ 유관 SDGs 세부목표

- (SDGs 1.4.1)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수
- (SDGs 2.3.1) 노동단위당 생산량(농업, 축산업,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)
- (SDGs 2.3.2)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(성별, 지역별)

##### □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

- (수출 작물의 전략적 육성) 르완다 정부의 수출 작물 육성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
  - － (제도 및 정책 지원) 농산물 수출시 ▲식량 안전 강화를 위한 검수, ▲수출 인허가 절차, ▲수출 관련 정보(수출 품목, 수량, 수출액 등)의 통합적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제도·정책적 기반 구축 지원
  - － (역량강화 지원)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수출 작물이 수출 품질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, 수출 작물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주체들(르완다 정부, 농민조직, 수출 기업 등)의 역량을 강화
  - － (수출 인프라 구축) 농산물을 내륙·해양항공 운송을 통해 인근국 및 세계 시장에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▲수확 후 관리, ▲운송, ▲가공, ▲보관 등을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
- (농업 가치사슬 개선)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강화를 통해 농업의 총 요소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

- (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 지원) 소규모 영세농가 중심의 가치사슬 체계에서 협동조합 및 농기업 중심의 가치사슬로 규모화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 촉진
- (금융 접근성 강화) ▲소액 금융, ▲디지털 금융 서비스, ▲농업 보험, ▲계약 농업 등 영농자금의 원활한 유통 및 영농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금융 접근성 강화
- (농업의 유통구조 개선) ▲수확 후 관리, ▲운송, ▲판매 등 농업 가치사슬 후반부인 유통구조를 효율화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
- (ICT를 활용한 산업의 효율성 강화) 농업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
  - (통합적 정보관리) 농업 분야의 다양한 시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ICT 시스템 개발 및 운영
  - (정보의 비대칭성 완화) ICT를 활용하여 ▲농산물 생산량, ▲수매 가격 등 다양한 시장정보를 시장 참여자에게 공개 및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
  - (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) 르완다 정부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맞춤형 ICT 시스템 개발
- (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성 개선) 민간 주도로 농업의 시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, ▲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, ▲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
  - (농가공 분야 육성) 농가공 분야의 기업 환경 개선 및 기업 직접 지원을 통해 농가공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
  - (산업의 표준화 지원)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질의 제품이 생산 및 가공될 수 있도록 산업 표준의 수립, 정착 및 모니터링을 지원
  - (소규모 영세기업 역량강화) 농업 분야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환경 개선 및 직접 지원 실시

## [2] 교육 분야

### □ 기본 방향

- (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) 기초 학습역량을 갖추고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한 인력 양성을 통해 르완다 산업 발전에 기여

#### ※ 유관 SDGs 세부목표

- (SDGs 4.3.1) 최근 12개월 내 형식·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, 성인의 수
- (SDGs 4.4.1) 기술 유형별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(수)
- (SDGs 4.c.1) TVET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비율

### □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

- (직업기술교육 접근성 개선) TVET 관련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합한 양질의 TVET 교육 접근성 개선
  - － (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) ▲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제도 수립, ▲교육과정에 직무능력 표준제도 도입 등 르완다 TVET 교육과정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
  - － (교육 및 평가 역량강화) ▲입학생 관리, ▲교육 절차 및 방법 수립, ▲품질 평가 및 감독, ▲우수사례 선정 및 지식확산 등 TVET 교육의 이행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
  - － (정부기관 인력 역량강화) ▲교육과정 개발, ▲교육 및 평가 절차 제도 수립, ▲모니터링 및 평가 등 정부기관 인력의 TVET 분야의 전문성 강화
- (직업기술교육 품질 개선) TVET 교육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
  - － (교육 기관의 역량강화) 교육기관의 하드웨어(인프라, 기자재 등) 및 소프트웨어(인력 확보, 기관 운영관리 등) 역량을 강화

- (교사 역량강화) ▲ TVET 교사 역량강화 제도 수립, ▲ TVET 교사 현지연수 실시, ▲ 현지연수 이수자 대상 국가공인 자격증 발급, ▲ TVET 교육 교수법 품질 강화 등 현장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실시
- (ICT 분야 인재양성) ▲ 교사의 ICT 활용역량 강화, ▲ ICT 분야의 TVET 교육기관 신설, ▲ ICT 분야의 TVET 교육과정 개발 등 ICT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
- (산학협력 확대) 산학협력 확대를 지원하여 노동의 수요·공급의 불일치 해소 및 르완다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
  - (산업 및 노동시장 분석) ▲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 간 불일치, ▲ 산업의 경쟁력 및 ▲ 성장 가능성 등 산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민-관의 긴밀한 협의 및 공동의 분석을 지원
  - (교육과정 민간참여) 학교 교육과정 및 산업현장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
  - (TVET 졸업생의 취창업 지원)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TVET 졸업생 대상 ▲ 멘토링 지원, ▲ 인턴십 기회 제공, ▲ 커리어 개발 자문 등 취창업 지원

### **(3) ICT 분야**

#### **□ 기본 방향**

- (ICT 기반 지식경제로 전환)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ICT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ICT의 활용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고 르완다가 ICT 기반 지식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



※ 유관 SDGs 세부목표

- (SDGs 16.6)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
- (SDGs 16.6.2)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

□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

- (정부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확대) ICT를 활용하여 공공 분야의 개방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개선하고, 정부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
  - (전자정부 정책 역량강화) ▲ 각 정부 부처의 제도 분석, ▲ 제도의 이행 현황 점검, ▲ 정책 및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등 전자정부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구축
  - (ICT 시스템 구축 및 운영) 르완다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하 각 부처별 니즈에 부합한 ICT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
  - (전자정부 내재화 지원) 르완다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자정부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주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
  - (전자정부 활용도 제고) ▲ 전자정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강화, ▲ 타 ICT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계 등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용성·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및 기술적 지원
- (ICT분야 인적역량 강화) 르완다 국민의 ICT 활용역량 및 디지털 문해율을 증진시켜 전자정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,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적역량 강화
  - (제도 및 정책지원) ▲ 디지털 문해, ▲ 디지털 교육인력 양성, ▲ 사회의 디지털 전환 등 르완다 국민의 ICT 활용역량을 위한 정부의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지원
  - (디지털 활용 교육) ▲ 디지털 대사 양성·운영, ▲ 디지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국민 대상 다양한 디지털 활용 교육 제공

- (디지털 접근성 개선) ▲디지털 기자재 지원, ▲인터넷 접근성 확대, ▲디지털 인식 제고 등 일반 르완다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
- (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) 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및 직접 지원을 통해 다양한 ICT 솔루션 개발을 촉진 하여, 르완다 국민들의 ICT를 활용 기회를 확대

수원국 개발목표(Vision 2050, 르완다 장기 국가개발계획 2020-2050)

: ‘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성장, 번영 및 삶의 질 향상’

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

#### CPS 목표

1. 농업 :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,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국가 산업 구조를 2차(가공) 및 3차(서비스)로 다변화 촉진
2. 교육 : 기초 학습역량 및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한 인력 양성을 통해 르완다 산업 발전에 기여
3. ICT :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행정효율화 및 ICT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ICT의 활용성 및 수용성 강화

| 중점 분야 | 분야별 목표  | 분야별 제약요인  | 분야별 성과  | 성과 지표  |
|-------|---|---|---|--|
| 농업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 작물의 전략적 육성, 농업 가치사슬 개선, ICT를 활용한 산업의 효율성 강화 및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성 개선</li> <li>- (SDGs 1.4.1)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수</li> <li>- (SDGs 2.3.1) 노동 단위당 생산량(농업, 축산업,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)</li> <li>- (SDGs 2.3.2)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(성별, 지역별)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 연구 부족</li> <li>- 영농기술 지도/보급 저조</li> <li>- 농업 인프라 부족</li> <li>- 농산업화 미흡</li> <li>- 수출 역량 부족</li> <li>- 농민 조직화 및 역량 미흡</li> <li>- 금융 접근성 저조</li> <li>- 유통구조 비효율</li> <li>- ICT 활용 부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 관리 제도 및 인프라 구축</li> <li>- 농민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육성</li> <li>- 농가 대상 금융 접근성 강화</li> <li>- 농업 유통구조 개선 및 효율화</li> <li>- 농업 분야 ICT 시스템 구축 및 운영</li> <li>- 산업 표준화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</li> <li>- 소규모 영세기업 역량강화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촌 빈곤 지수 개선</li> <li>- 농가 가구당 소득증대</li> <li>- 농업생산량 증대</li> <li>- 수출량 증대</li> <li>- 수출기업 소득 증대</li> <li>- 농가공 제품의 산업경쟁력 강화</li> </ul>   |
| 교육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업기술교육 정부기관의 역량강화, 직업기술교육 품질 개선 및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직업기술 역량강화</li> <li>- (SDGs 4.3.1) 최근 12개월 내 형식·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, 성인의 수</li> <li>- (SDGs 4.4.1) 기술 유형별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(수)</li> <li>- (SDGs 4.c.1) TVET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비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 인프라 부족</li> <li>- 교사 역량 부족</li> <li>- 교육과정 수립 정책 미흡</li> <li>- 교육평가 및 품질 관리 체계 미흡</li> <li>- 낮은 중등교육 이수율</li> <li>- 산학협력 부족</li> <li>- 정부의 정책 및 제도수립 역량 부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</li> <li>- 교육 및 평가 역량 강화</li> <li>- 정부기관 인력 역량 강화</li> <li>- 직업기술교육기관 역량강화</li> <li>- 직업기술교육 교사 역량강화</li> <li>- ICT 분야 인재양성 제도 구축</li> <li>- 민-관 산업 및 노동시장 공동 분석</li> <li>- 교육과정에 민간 참여 촉진</li> <li>- 직업기술교육 졸업생의 취, 창업 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업기술교육에 만족도 향상</li> <li>- 직업기술교육 취, 창업률 증대</li> <li>- 현지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의 수 증가</li> <li>- 산학협력 사례 증가</li> <li>- 학생들의 직무 표준능력 향상</li> </ul> |

|     |   |   |  |  |
|-----|---|---|--|--|
| ICT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정부 역량강화 및 르완다 국민의 ICT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ICT 기반 지식경제로 전환</li> <li>- (SDGs 16.6)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</li> <li>- (SDGs 16.6.2)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CT 인프라 부족</li> <li>- 낮은 ICT 문해율</li> <li>-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용력</li> <li>- 전자정부 이행역량 부족</li> <li>- 낮은 행정 서비스 효율성</li> <li>- ICT 분야 전문가 부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정부 정책 역량강화</li> <li>- ICT 시스템 구축 및 운영</li> <li>- 전자정부 내재화 지원</li> <li>- 전자정부 활용도 제고</li> <li>- 디지털 문해율 제도 및 정책 지원</li> <li>-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교육</li> <li>- 디지털 접근성 개선</li> <li>- 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 서비스의 ICT 시스템 활용도 행정 서비스에 만족도 향상</li> <li>- 디지털 문해율 향상</li> <li>- 디지털 교육인력 확대</li> <li>- ICT 분야 스타트업 수 확대</li> <li>- ICT 시스템 개발 수 증가</li> </ul> |
|-----|---|---|--|--|

## IV. 이행전략

### □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

- (타 공여기관과 협력체계 강화) ▲주재국-공여국 협의 제도 (DPR, DPCG 및 SWG) 및 ▲공여국 간 협의제도 참여를 통해 타 공여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원조의 협업 및 연계 도모
- (개발협력 프로그램 참여)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 및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는 르완다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, 타 공여기관과 시너지 창출

### □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

- (디지털뉴딜) 우리 정부의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르완다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, 르완다가 ICT 기반의 지식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
  - － ▲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, ▲ 주요 분야에 ICT 융합 확대, ▲경제·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, ▲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르완다의 지속가능발전(SDGs)에 기여
- (그린뉴딜)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르완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확대
  - － ▲온실가스 저감, ▲기후적응력 향상, ▲교차(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)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
- (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) ODA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 - － 국익에 부합한 ODA 추진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

## □ 통합적인 ODA 사업의 발굴 및 추진

- (유·무상 및 무상 간 연계 강화) ▲ 유·무상 연계협의회, ▲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, ▲ ODA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발굴 단계부터 각 ODA 수행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 및 협의
  - － 유·무상 또는 무상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ODA 사업의 발굴 및 추진
- (민간 부문과의 협력 확대) ▲ 시민사회조직(CSOs), ▲ 연구기관(학계), ▲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(CSV), ▲ 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, ODA 사업에 민간의 혁신적 기술 도입 및 개발재원 확대 효과 창출
  - －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‘혁신적 ODA’를 추진하여 르완다의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
  - －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및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통한 ‘함께하는 ODA’ 실현

## □ 혁신적인 ODA 성공사례 창출

- (르완다의 혁신성 및 파급력 활용) 르완다의 혁신에 대한 높은 개방성 및 인근 국가로의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여, 혁신적인 ODA 사업의 발굴 및 추진
  - － ▲ 혼합금융, ▲ 성과기반 재정지등 혁신적인 사업 추진방식 적용 검토
  - － 민간 부문(기업의 CSV 활동 연계, 사회적 기업, CSO 등)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ODA 사업 발굴 및 추진

## VI.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

### 1 모니터링 방안

- (통합모니터링)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**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·활용**
  -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고 ODA 사업 발굴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
  -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,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
- (리스크 매트릭스)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
  -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
  -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

#### < 리스크 매트릭스 >

| 위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응 방안  | 모니터링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1.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</li> <li>○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 발생 시 |
| 2.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</li> <li>○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</li> <li>○ 필요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</li> </ul> | 상황 발생 시 |
| 3. 취약한 시장경제제도로 인한 거시 경제적 불안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 경제 제도 변경 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</li> <li>○ 필요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</li> </ul>               | 상황 발생 시 |
| 4. 전염병 발생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</li> <li>○ 필요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상황 발생 시 |
| 5. 법적.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적.제도적 장애요인 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</li> <li>○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 발생 시 |
| 6.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</li> <li>○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반기별     |

## 2 평가 계획

- (평가목적)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
- (평가시기)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~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,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
- (평가유형)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, 제약요인, 성과,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
  - (중간점검)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,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
  - (종료평가)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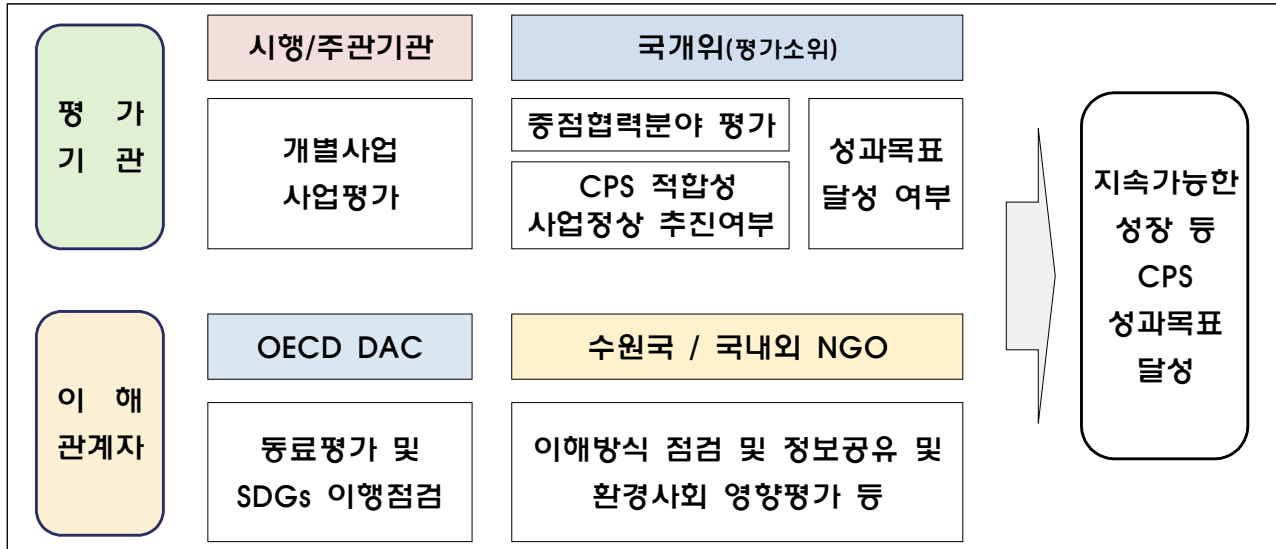
|      | 평가시기             | 평가주체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간점검 | CPS 적용<br>2-3년 후 | 평가소위<br>(주관기관, 시행기관<br>참여) |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<br>필요시 CPS 수정 |
| 종료평가 | CPS 종료<br>1년 전   | 평가소위<br>(주관기관, 시행기관<br>참여) |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<br>CPS 수정 및 재수립  |

- (평가내용) ODA 시행사업,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
  - (시행사업)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,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
  - (평가기준) OECD DAC 5대 평가원칙(공정성, 독립성, 신뢰성, 유용성, 파트너십) 및 6대 평가기준(적절성, 일관성, 효율성, 효과성, 영향력, 지속가능성)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



- (중점협력분야)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,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

<평가 절차 도식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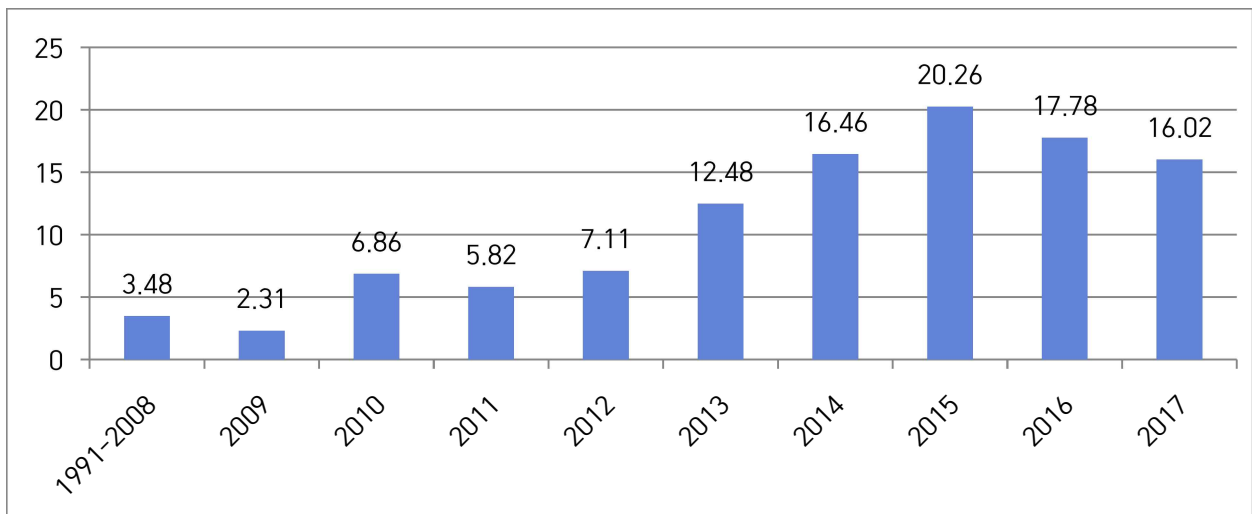
- (평가환류)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,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

## 1 지원 현황

- (총괄) 우리정부는 르완다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으며, '17년 총지출 기준 약 1,650만불을 지원
-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'17년 기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각각 3%, 97% 차지, 대부분의 원조가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

### < 우리나라의 對 르완다 ODA 지원 규모 추이 >

(단위: 백만불)



주: 순지출액 기준  
자료: OECD Stats.

- (중점분야) '16~'20년 기간 우리나라의 對르완다 지원 총액(1,149억원) 중 중점 협력분야 지원 비중은 82.8%
- 분야별 지원 비중은 ▲ 교육(48.3%), ▲ 지역개발(21.2%), ▲ 통신(13.4%) 순

## □ 일 반

- (개황)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 내륙에 위치하며 탄자니아, 콩고민주공화국, 부룬디, 우간다와 접하며, 인구는 약 1,270만 명으로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%를 차지

## □ 정 치

-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내전을 종식시키며 정권을 잡은 르완다애국전선이 여당으로 활동 중이며, 그 외 사회민주당(PSD), 녹색당(GP), 자유당(LP) 등이 야당으로 활동 중
- 폴 카가메 대통령은 '00년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, '03년과 '10년 선거에 이어 '17.8월 세 번째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, 적극적인 국가개발정책을 펼치는 중
  - '15.11월, 국민투표를 통해 '24년부터는 기존 7년이었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직은 동일인이 두 번까지 맡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
  - 단, 예외적으로 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여 폴 카가메의 '17년 3선 출마·당선이 가능하였으며, 대통령 연임에 대한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차기 '24년 대선 출마 또한 가능

## □ 경 제

- (경제규모) 국내총생산(GDP)은 1994년 7억 5,200만 달러에서 '19년 101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, 1인당 GDP의 경우 같은 기간 126달러에서 816달러로 증가
- (경제성장률) '19년 9.4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이듬해인 '20년 급격히 하락하여 2.0%에 그칠 것으로 추정

-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'20년 경제성장률은 2.0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, 르완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'21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**< 르완다 주요 경제지표(국내경제) >**

| 경제지표     | 단위   | 2017 | 2018 | 2019 | 2020* | 2021*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GDP      | 억 달러 | 93   | 96   | 101  | 104   | 106   |
| 1인당 GDP  | 달러   | 784  | 796  | 816  | 823   | 820   |
| 경제성장률    | %    | 4.0  | 8.6  | 9.4  | 2.0   | 6.3   |
| 재정수지/GDP | %    | -2.5 | -2.6 | -5.2 | -7.7  | -7.1 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%    | 4.8  | 1.4  | 2.4  | 6.9   | 1.0   |

\*주: 2020년 수치는 추정치,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(2020). 2021 세계국가편람

**< 르완다 주요 경제지표(대외 및 외채) >**

| 경제지표        | 단위    | 2017  | 2018  | 2019  | 2020*  | 2021*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환율(달러당, 연중) | Rwf   | 831.6 | 861.1 | 899.4 | 945.1  | 983.8 |
| 경상수지        | 백만 달러 | -690  | -746  | -781  | -791   | -868  |
| 경상수지/GDP    | %     | -7.5  | -7.7  | -7.7  | -7.6   | -8.2  |
| 상품수지        | 백만 달러 | -829  | -915  | -820  | -1,053 | -955  |
| 수출          | 백만 달러 | 1,050 | 1,126 | 1,269 | 785    | 949   |
| 수입          | 백만 달러 | 1,879 | 2,041 | 2,089 | 1,837  | 1,905 |
| 외환보유액       | 백만 달러 | 1,072 | 1,252 | 1,363 | 980    | 1,067 |
| 총외채잔액       | 백만 달러 | 4,825 | 5,489 | 6,257 | 7,178  | 8,075 |
| 총외채잔액/GDP   | %     | 52.1  | 57.0  | 61.8  | 68.8   | 76.0  |
| 단기외채        | 백만 달러 | 68    | 105   | 147   | 141    | -     |
| 외채상환액/총수출   | %     | 5.7   | 7.2   | 7.2   | 19.1   | 18.4  |

\*주: 2020년 수치는 추정치,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(2020). 2021 세계국가편람

- (경상수지)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팬더믹의 경제·사회적 피해를 받기 시작한 '20년부터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 상황
  - '19년 경상수지는 7억 8,100만 달러 적자였으나, '20년은 7억 9,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, '21년은 8억 6,8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외채현황) 코로나19가 발생한 '20년부터 외채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중
  - '20년 총 외채잔액은 71억 7,800만 달러로 총 GDP의 약 68.8%를 기록. '21년의 총 외채잔액은 80억 7,500만 달러로 늘어나 총 GDP의 약 76%에 달할 것으로 전망

- (산업구조) '19년 기준 서비스업 53%, 농업 30%, 제조업 17%
  - '13년 대비 농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(약 2%), 여전히 농업은 전체 노동인구의 약 70%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산업
  - 르완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혁신을 도모하여 개발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중
- (대외거래) 주요 수출품인 커피와 차의 국제 가격 변동에 따른 르완다 경제는 변화 폭이 큰 상태
  - \* 주요수출품(2020) : 커피, 차, 가죽, 아연광
  - \* 주요수입품(2020) : 식료품, 기계류, 강철, 석유제품, 시멘트 및 건설자재
- (국가신용) OECD 국가신용등급 6등급, S&P B+ 등급, Moody's B2 등급을 유지 중

###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

#### □ 수원 현황

- 르완다에 대한 ODA 총 지출액은 '19년 기준으로 12억 3,100만 달러
- ODA 총지출액 중 양자 ODA의 비중이 '17년부터 지속 상승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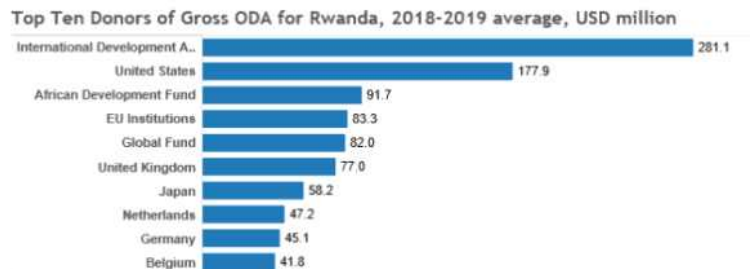
< 가나의 ODA 수원 추이 >

|               | 단위    | 2017    | 2018    | 2019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ODA 총 지출액     | 백만 달러 | 1,255.8 | 1,144.1 | 1,231.6 |
| ODA 순 지출액     | 백만 달러 | 1,231.3 | 1,119.7 | 1,191.1 |
| 양자 ODA 비율     | %     | 41.8    | 45.7    | 47.4    |
| ODA 순 지출액/GNI | %     | 13.8    | 12.0    | 12.2    |

자료: OECD.Sta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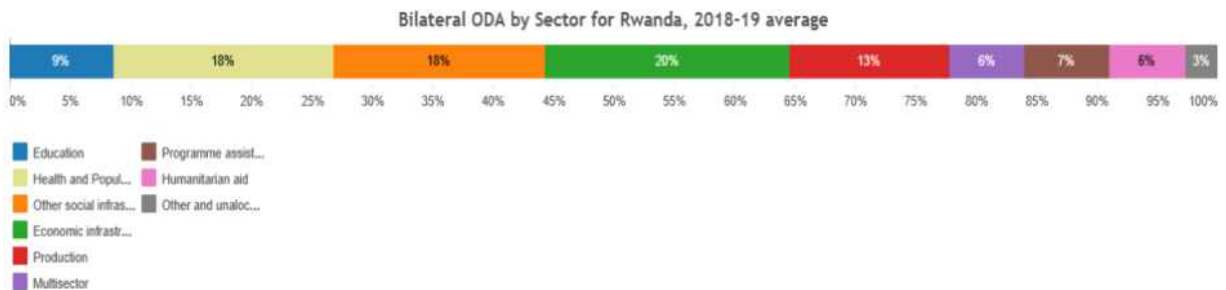
#### □ 주요 공여기관 및 원조분야

- 세계은행, 미국, AfDB, EU, Global Fund 순으로 ODA 지원중



자료: OECD.Stats

- '18-'19년 기준, ODA 주요 지원분야는 경제 인프라 지원 (20%), 사회적 인프라 지원(18%), 보건(18%) 순으로 지원



자료: OECD.Stats

## □ 주요 공여기관 활동

### ○ 세계은행 그룹(World Bank Group)

- (지원 규모) '16-'19년 ODA 총 지원액은 8억 7천 1백만 불에 이르며, '18-'19년 약 3억 4백만 불을 지원. 이는, 총 '18-'19년 회계연도 르완다 ODA 재원의 약 29%의 규모로, 최대 공여기관에 해당
- (지원 분야) '17년 기준 IDA(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)를 통해 경제 인프라(1억 6천 8백만 불), 생산(6천 3백만 불), 사회 인프라(6천 2백만 불)의 순으로 분야별 지원

### ○ 미국(USAID)

- (지원 규모) '16-'19년간 ODA 총 지원액은 4억 4천 6백만 불에 이르며, '18-'19년 회계연도에 약 1억 4천 4백만불 지원
- (지원 분야) '17년 기준 사회 인프라(1억 3천 2백만 불), 인도적 지원(1천 5백만 불), 생산(1천 5백만 불)의 순으로 분야별 지원

### ○ 유럽연합(EU)

- (지원 규모) '16-'19년 ODA 총 지원액은 2억 6천 5백만 불에 이르며, '18-'19년 회계연도에 약 8천 2백만 불을 지원
- (지원 분야) '17년 기준 경제 인프라(7천 5백만 불), 생산(6천 3백만 불), 사회 인프라(9백만 불)의 순으로 분야별 지원

### ○ AfDB Group(아프리카 개발은행)

- (지원 규모) '16-'19년 ODA 총 지원액은 3억 3천 7백만 불에 이르며, '18-'19년 회계연도에 약 1억 1천 3백만 불을 지원
- (지원 분야) '17년 기준 경제 인프라에 4천 2백만 불, 사회 인프라에 5백만 불 규모로 지원